

'26.5월 취업자수는 중동전쟁 장기화 영향 등으로 △4.0만명 감소

- 서비스업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, 제조업·건설업에서 감소폭 확대
- 청년 쉬었음은 4개월 연속 감소했으나,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
- 고용관계장관회의 등 통해 고용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+ 총력 대응

① '26.5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.3%로 전년대비 △0.5%p 하락했으며, 15~64세 고용률은 70.2%로 전년대비 △0.3%p 하락했다. 경제활동참가율은 65.2%로 전년대비 △0.4%p 하락했으며, 실업률은 2.9%로 전년대비 0.1%p 상승했다.

* 5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3.8 → **63.3** <경활률> 65.6 → **65.2** <실업률> 2.8 → **2.9**

○ 연령별로는 40대(80.7%, +0.5%p)·50대(78.5%, +0.9%p) 고용률이 상승했고, 30대(81.2%, 0.0%p)는 포함 60세 이상(47.9%, △0.4%p)은 하락했다.

- 청년 고용률(43.8%, △2.4%p)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나, 쉬었음 인구는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.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5)39.6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5)△0.3 (11)0.7 (12)0.0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(4)△2.4 (5)△1.2

○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경활률과 고용률은 역대 4위이며, 15~64세 고용률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△4.0만명 감소해 '24.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5)24.5 (11)22.5 (12)16.8 ('26.1)10.8 (2)23.4 (3)20.6 (4)7.4 (5)**△4.0**

○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, 내수연관 서비스업 고용 개선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.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2)57.5 ('23)38.5 ('24)23.9 ('25)49.2 ('26.1/4)31.5 (4)20.8 (5)**24.8**

-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전문·과학기술서비스업(△11.5→△8.9만)은 감소폭 축소, 정보통신(1.8→2.6만명)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.

-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숙박음식(△2.9→2.0만)은 7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고, 운수창고(1.8→3.6만)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, 도소매(△5.2→△3.6만)는 감소폭이 축소되었다
 - 제조업(△5.5→△14.0만명), 건설업(△0.8→△4.3만명)은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누적된 비용부담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
 - 지위별로는 일용직(2.2→1.4만명)은 증가했으나, 상용직(6.2→△0.7만명)은 감소 전환, 임시직(△12.7→△12.1만명)은 감소세 지속되었다.
- ③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,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애로가 이어지면서 5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전환 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.
- 6월은 고유가피해지원금,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 주요과제 등 추경효과 등이 기대되나, 중동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 시기와 속도를 예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.
- ④ 정부는 관계장관회의, 일자리 전담반 등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·계층별 일자리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, 고용안정지원조치* 시행, 보완과제 발굴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.
- * 고용유지지원금 지원,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, 버팀이음프로젝트 등
- 청년고용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, 일경험 프로그램 등 「청년뉴딜 추진방안」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, 7월부터 시작되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준비한다.
 - 아울러, AX·GX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자리에 과도한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「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」을 조속히 수립하고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태웅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운 (044-215-8532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천경기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봉 (044-202-7256)



1. '26.5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63.3%(월간 역대 4위), 경제활동참가율 65.2%(월간 역대 4위), 실업률 2.9%, 취업자수 △4.0만명 감소

○ 15세 이상 고용률 63.3%로 △0.5%p 하락(역대 4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70.2%로 △0.3%p 하락(역대 2위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5.2/4)63.5 (3/4)63.5 (4/4)62.7 ('26.1/4)61.8 (4)63.0 (5)63.3
고용률(15-64세, %): ('25.2/4)70.2 (3/4)70.2 (4/4)70.0 ('26.1/4)69.3 (4)70.0 (5)70.2

○ 경제활동참가율 65.2%로 △0.4%p 하락(역대 4위, '99.6월~)

* 경합률(15세+, %): ('25.2/4)65.4 (3/4)64.9 (4/4)64.6 ('26.1/4)64.1 (4)64.9 (5)65.2

○ 실업률은 2.9%로 0.1%p 상승(5월 기준역대 최저 3위, '99.6월~)

* 실업률(15세+, %): ('25.2/4)2.8 (3/4)2.2 (4/4)2.9 ('26.1/4)3.5 (4)2.9 (5)2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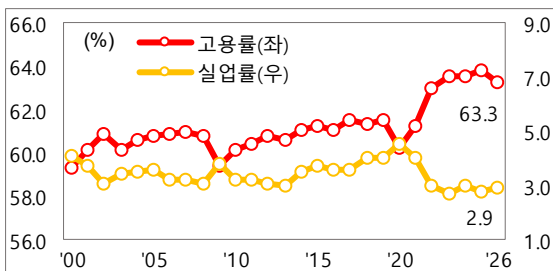
○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△4.0만명 감소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20.7 (3/4)21.6 (4/4)19.5 ('26.1/4)18.3 (4)7.4 (5)△4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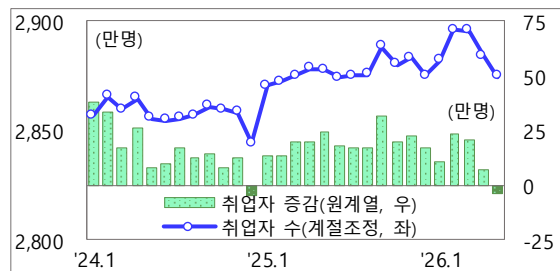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△9.4만명 감소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5.2/4)4.2 (3/4)2.8 (4/4)△0.2 ('26.1/4)11.7 (4)△11.7 (5)△9.4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5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비)



□ (산업)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, 제조업·건설업 감소폭 확대

○ (서비스) 내수연관 서비스업, 지식기반서비스업 고용 개선 등으로 증가폭 확대(20.8 → 24.8만명)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55.0 (3/4)51.1 (4/4)46.7 ('26.1/4)31.5 (4)20.8 (5)24.8

* 공공복지 외 서비스전년비, 만명: ('25.2/4)29.5 (3/4)22.0 (4/4)20.9 ('26.1/4)10.8 (4)△3.6 (5)3.4

- 보건복지(26.1→21.2만)는 돌봄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, 증가폭은 다소 조정

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22.2 (3/4)29.0 (4/4)26.0 ('26.1/4)25.6 (4)26.1 (5)21.2

-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숙박음식(△2.9→2.0만) 7개월 만에 증가 전환, 운수창고(1.8→3.6만) 증가폭 확대

- * 숙박음식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3.5 (3/4)△1.5 (4/4)△0.7 ('26.1/4)△1.5 (4)△2.9 **(5)△2.0**
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1.1 (3/4)1.4 (4/4)4.2 ('26.1/4)7.6 (4)1.8 **(5)3.6**
 도소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0.8 (3/4)1.3 (4/4)3.4 ('26.1/4)0.9 (4)△5.2 **(5)△3.6**
- * CSI(장기평균=100): ('25.12)109.8 ('26.1)110.8 (2)112.1 (3)107.0 (4)99.2 (5)106.1

- 정보통신(1.8→2.6만)은 증가폭 확대, 전문과학(△11.5→△8.9만)은 감소폭 축소(계절조정 전월비는 증가)

- *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 4.7 (3/4)△0.4 (4/4)0.9 ('26.1/4)△2.0 (4)1.8 **(5)2.6**
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11.1 (3/4)5.0 (4/4)△1.9 ('26.1/4)△8.8 (4)△11.5 **(5)△8.9**
 ↳계절조정 취업자(전월비, 만명): ('25.12)△2.2 ('26.1)△3.2 (2)△1.6 (3)2.9 (4)△0.2 **(5)2.2**

○ **(제조)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폭 확대**(△5.5→△14.0만명)

- 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9.1 (3/4)△6.7 (4/4)△5.2 ('26.1/4)△2.7 (4)△5.5 **(5)△14.0**
- 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: ('24)8.1 ('25.11)12.8 (12)8.6 ('26.1)13.8 (2)49.3 (3)41.9 (4)48.0 **(5)60.7**
 ↳주요품목 증가율(전년비, % 4→5월: (반도체)173.5→169.4 (자동차)△5.5→△5.9 (기계)△2.6→△6.3

○ **(건설) 건설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감소폭 확대**(△0.8→△4.3만명)

- 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11.8 (3/4)△10.2 (4/4)△10.6 ('26.1/4)△2.5 (4)△0.8 **(5)△4.3**
- * 자재수급지수(건설연): ('25.10)93.5 (11)88.9 (12)89.4 ('26.1)88.5 (2)91.0 (3)74.3 **(4)55.3**

○ **(농림) 고령화 등에 따른 쉬었음 전환, 5월 중순 이상고온 등으로 감소폭 확대**(△9.2→△12.1만명)

- 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2/4)△13.7 (3/4)△13.7 (4/4)△12.4 ('26.1/4)△8.5 (4)△9.2 **(5)△12.1**
- * 5월 중순 평균기온은 19.7°C로 역대 1위, 경상도 일부지역은 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 발생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7.5%(+0.1%p), 40·50대 고용률 상승**

○ **(지위) 상용직 감소 전환**(△0.7만명)·**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, 임시직은 감소 지속**(△12.1만), **일용직 증가폭 축소**(+1.4만)

- * 상용직 비중(5월, %): ('00)29.7 ('05)34.4 ('10)41.5 ('15)47.9 ('20)53.7 ('25)57.4 **(26)57.5**
 임금근로자 증감(4월→5월, 전년비, 만명): <상용>6.2→△0.7 <임시>△12.7→△12.1 <일용>2.2→-1.4

- 비임금근로자(7.5만명)는 고용有(8.0만명)·無(2.9만명) 자영업자 증가폭 축소, 무급가족종사자(△3.4만명) 감소폭 확대

- 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만명, 4→5월): <고용有>9.9→8.0 <고용無>4.1→2.9 <무급>△2.4→△3.4

○ (연령) 40·50대 고용률 상승, 30대 보합, 청년층·60대 이상은 하락

- 청년층 고용률(43.8%, △2.4%p) 하락, 실업률(7.2%, +0.6%p) 상승

(%, %p)		'25년	3/4	4/4	'26.1/4	3월	4월	5월
고용률	청년	45.0 (△1.1)	45.3 (△1.1)	44.4 (△0.9)	43.5 (△1.0)	43.6 (△0.9)	43.7 (△1.6)	43.8 (△2.4)
	20初	43.6 (△1.5)	44.8 (△0.8)	42.6 (△1.3)	40.5 (△2.2)	39.8 (△2.5)	40.5 (△2.5)	41.6 (△4.2)
	20後	71.8 (△0.7)	71.8 (△0.7)	71.5 (△0.7)	70.6 (△0.6)	71.4 (△0.1)	71.5 (△1.0)	71.4 (△1.3)
실업률	청년	6.1 (+0.2)	5.1 (+0.2)	5.7 (+0.1)	7.4 (+0.6)	7.6 (+0.1)	7.1 (△0.2)	7.2 (+0.6)
	20初	6.6 (+0.3)	5.3 (+0.7)	5.4 (△0.4)	8.2 (+0.1)	9.4 (+0.2)	9.0 (+1.1)	7.2 (△0.5)
	20後	5.9 (+0.3)	5.1 (+0.1)	5.8 (+0.2)	6.9 (+0.6)	6.9 (+0.1)	6.3 (△0.8)	7.1 (+0.8)

- 청년층 쉬었음(38.4만명, △1.2만명)은 4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5)39.6 (10)40.9 (11)41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5월 13.5%, 105.3만명)은 전년비 감소(△0.2%p, △3.7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4.0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5월 기준, %)

(5월 기준, 만명, %)		최근 5년 평균 ('21~'25)	'21	'22	'23	'24	'25	'26
합계(A+B+C)	수(인구내비중)	117.3 (14.0)	141.7 (16.1)	119.8 (13.9)	108.8 (12.9)	108.1 (13.2)	109.0 (13.7)	105.3 (13.5)
실업자(A)	수(인구내비중)	30.1 (3.6)	40.2 (4.6)	32.0 (3.7)	24.7 (2.9)	27.6 (3.4)	26.2 (3.3)	26.6 (3.4)
취준생(B)	수(인구내비중)	48.8 (5.8)	62.3 (7.1)	53.2 (6.2)	45.5 (5.4)	40.7 (5.0)	43.2 (5.4)	40.3 (5.2)
쉬었음(C)	수(인구내비중)	38.4 (4.6)	39.2 (4.5)	34.6 (4.0)	38.6 (4.6)	39.8 (4.9)	39.6 (4.9)	38.4 (4.9)

※ 청년층은 쉬었음 사유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

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와 취업자수가 함께 증가하며 고용률 보합,
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6 (4/4)0.2 ('26.1/4)0.5 (4)0.2 (5)0.0 **[81.2]**
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9 (3/4)0.7 (4/4)1.0 ('26.1/4)1.2 (4)1.0 (5)0.5 **[80.7]**

- 5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
60세 이상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하락

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△0.2 (3/4) 0.1 (4/4) 0.3 ('26.1/4)0.8 (4) 0.7 (5) 0.9 **[78.5]**
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2/4) 0.8 (3/4) 0.9 (4/4) 0.5 ('26.1/4)0.1 (4)△0.3 (5)△0.4 **[47.9]**

2. 평가 및 대응

□ '26.5월 취업자는 **중동전쟁** 등에 따른 **원자재 가격 상승** 등으로 **제조업 중심 고용 둔화**되며 '24.12월(△5.2만명) 이후 처음으로 **감소**(△4.0만명)

- 서비스업은 고유가피해지원금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숙박·음식·운수창고 등 내수업종 중심 고용 회복되며 증가폭 확대
 - 정보통신은 3개월 연속 증가, 전문과학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계절조정 전월비로는 회복흐름 지속되는 모습
 - 보건복지업은 돌봄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세 지속
-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누적된 비용부담 등으로 제조업·건설업 취업자수 감소폭 확대
-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, 다만 쉬었음은 4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
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5)39.6 (12)41.1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**(5)38.4**
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5)△0.3 (12) 0.0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(4)△2.4 **(5)△1.2**

- 고유가피해지원금, 청년뉴딜* 등 추경효과 등은 상방요인이나, 중동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시기·속도 예단 어려운 상황

* 6월에는 농지조사(농식품부) 등 청년뉴딜 일경험 프로그램도 본격 반영 예상

□ **중동전쟁의 고용영향 모니터링, 고용안정조치 및 보완과제 발굴 등 총력 대응 + 청년, 창업지원, 산업전환 등 부문별 대응에 만전**

- 고용관계장관회의, 일자리 전담반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영향 점검, 고용안정조치* 및 추가과제 발굴 등 총력 대응

* 고용유지지원금 지원,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, 버팀이음프로젝트 등

- 청년뉴딜 역량강화·일경험·회복 등 핵심과제*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,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(7월)도 차질없이 준비

* K뉴딜 아카데미 프로그램 심사·참여청년 모집(~6월) 후 아카데미 개설(7월~), 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차(5,500명, 7월)·2차(4,000명, 9월)에 걸쳐 실태확인 실시 등

- AX·GX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자리에 과도한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「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」 조속히 수립